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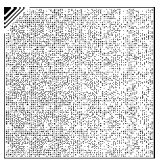


# 새보람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2015년 5월 265호

(02) 796-4280 www.kappd.or.kr

**3 뉴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의 한국대표단 출범



**12 특집**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스케치



**14 인물**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자 마르셀 후



**18 국제**  
LA시, 보행로 장애 친화적 공사



##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마르셀 후 우승

### 홍석만, 국내 선수 중 1위 기록



5월 9일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가 열렸다.

국제공인대회로 5월 9일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제 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스위스의 마르셀 후 (Marcel Hug, 28) 선수가 영광의 월계관을 썼다.

지난 대회 우승자이자 대회 최고 기록 보유자인 마르셀 후는 이날 1시간 23분 32초를 기록하며 42.195km 풀마라톤 2연패를 달성했다. 그는 “서울은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인데 이번엔 2회 연

속 우승이라는 기억을 갖게 돼 행복하다”는 우승 소감을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런던마라톤대회에서 결승점을 앞두고 휠체어 바퀴에 구멍이 났던 불운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우승자 마르셀 후에 뒤이어 들어온 타이의 타나 라왓(37)과 일본의 소에지마 마사즈미(43)도 우수한 기록인 1시간 27분대에 결승점을 통과하며 각각 2·3위

를 차지했다.

국내 선수 중에는 홍석만(40) 선수가 1시간 29분 13초로 가장 빨리 결승점을 통과했고, 이기학(44)과 이윤오(35)가 뒤이어 들어왔다. 국내 최초 여성휠체어마라토너 김수민(29)은 지난 대회보다 24분 빠른 2시간 8분 54초로 자신의 기록을 앞당겼다.

하프마라톤은 대한민국의 유병훈(43)이 우승했고, 일본의 시마다 카즈히코(43)와 와타나베

슈스케(46)가 2·3위에 올랐다. 새로이 추가된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은 여자부분 이도연, 남자 H1~2는 김용기, 남자 H4~5부분은 이인제가 정상에 올랐다.

그 밖에 휠체어생활체육 선수들의 5km 부문 경쟁과 홍보대사 탤런트 이훈이 함께 달린 어울림 5km 비경쟁 부문의 레이스가 펼쳐졌다. 경쟁 부문을 통해 생활체육 선수들이 기량을 뽐냈고, 어울림 부문 참가자들은 장애인

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차별 없는 축제를 즐겼다.

어울림 부문을 완주한 이훈은 “나 혼자 달리면 더 빨리 달릴 순 있겠지만, 이토록 행복하게 달릴 순 없었을 것”이라며 “오늘의 행복한 경험을 기억하며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을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홍보대사인 걸그룹 타히티는 특별공연을 통해 재능기부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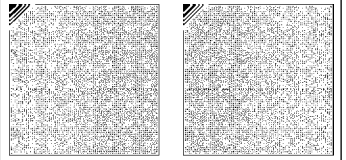
한편 선수와 자원봉사자, 관객 등 총 1만 5000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선수안전 및 최적화된 노선관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 교통통제 등 전반에 걸쳐 문제없이 치러졌다.

김광환 대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는 국내의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정을 나누는 축제였다”며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해 함께 달린 모든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가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대한장애인육상연맹,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공동주최하고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KBS 한국방송이 후원했으며 신한금융그룹이 협찬했다.

〈12면에 계속〉





# 27년째 인권 사각지대 ‘신망애의 집’

## 지적장애인 12명...노예 생활



장애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단기거주시설 '신망애의 집'.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망애(信望愛)의 집'에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가 4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 있는 신망애의 집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그간의 만행이 드러났다.

사전에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

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들어간 현장에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활동가들이 거주인들에게 체벌과 폭행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모른다”는 일관된 답변이 돌아왔다.

이어서 활동가들이 “아빠(시설장을 부르는 말)가 대답하지 말했어요?” 하고 묻자 거주인은

“응”이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불안한 모습으로 사방을 살폈다.

1~2급 지적장애인 12명이 이용하는 신망애의 집은 1988년 개원해 27년째 운영하고 있다. 한 해 1억 2,000여 만 원의 보조금과 7,000여 만 원의 후원금을 받는다. 거주인들은 매월 38만 원씩 이용료를 낸다.

옷장 위엔 서초구청에서 받은 권고조치(후원금 부정 집행 등) 공문서류 멍치가 나뒹굴었다. 구청 권고를 제외하고, 외부기관 조사를 받은 적 없는 신망애의 집은 공공 감시를 피해 27년간 방치돼 왔다.

이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거주인 심층 면담 조사를 통해 시설 종사자가 거주인을 체벌·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모른다며 답변을 피하던 지적장애 1급 모 씨는 “다른 친구를 때린 것을 본 적이 있다”며 “아빠에게 맞아서 쓰러진 사람도 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을 빨리 안 하

면 몽둥이로 때린다”고 했다.

또 다른 장애인은 “맞는 사람이 바보야, 잘못했으면 맞아야지”라고 말했다. 산중턱에 있는 시설 주변엔 고추, 상추 등을 심은 텃밭이 펼쳐져 있었다. 모두 거주인을 동원해 땅을 파고 작물을 수확한 곳이었다. 연탄을 나르거나 개집을 짓는 등 이들이 도맡은 잡일은 다양했다.

거주인들이 노동에 동원되는 것 이외에는 방치되어 생활했음도 드러났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조사가 마무리 될 오후 6시까지 거주인들은 식사시간을 제외하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와 냉장고 모터 소리를 빼면 내내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 오후 뉴스, <징비록>, <추적 60분>, <통일전망대>가 방송되는 8시간 동안 거주인들은 전동 휠체어에 멍하니 앉아 있거나 벽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 시간을 보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 시설 운영규칙엔 거주인 대상 프로그램 진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신망애의 집은 이를 어기고 방치하고 있었다. 또 거주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부실했다. 거의 매일 라면·김치·밥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이 작성한 주간식단엔 라면이 없었다.

이 사태를 두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나광석 시설지원부장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종교법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 복지 그 자체가 아닌 포교와 종교적인 이상실현이다. 이번 사건은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몰이해와 장애인 복지 실현의 장기적 플랜이 부재한 종교법인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김예원 변호사 등 인권센터 관계자와 장애여성공감·장애인인권침해방센터 활동가 등 10여 명이 참가해 3일간 진행됐다.

### 성명서

**신을 욕 되게 하며 선행을 가장한 종교재단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종교재단은 복지시설 운영을 전면 포기하고 순수한 후원사업에 전념하라.**

그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운영비리는 우리 장애인들과 사회일반의 공분을 일으켜 왔다. 인강원, 향림원 등등 최근 일어난 대형사건들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의 역사 속에서 독점적 독벌 경영을 통해 복지재벌로 등극한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의 이러한 행태는 이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척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들로 구성된 일반 사회복지법인들에 이어 급기야 종교법인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사태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바로 내로라하는 굴지의 ‘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신망애의 집’에서 거주 장애인들을 때리거나 강제노역을 시키고 후원금을 부정 집행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

과 비리, 부정의 행태가 적발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종교기관들이 신의 이름을 빌려 우리 사회에 선행을 베풀기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며 그 순수성을 믿어왔었기에 더더욱 경악할만한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종교재단들은 이렇듯 자선사업을 명분으로 사회복지계의 자원들을 막대하게 끌어들이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지방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그 운영비의 대부분을 정부의 보조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과연 순수한 복지사업인가?’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왔다. 상대적으로 자생적인 복지단체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벌여가며 단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스스로의 배불리기에 집중해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엄연히 금지되어 있는 시설 내의 종교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함으로 장애인들

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신망애의 집 사태는 종교재단들의 이러한 몰도덕적 가치관과 방만한 운영의 결과가 필연적으로 잉태할 수밖에 없었던 악마의 씨앗이라고 판단된다.

정부는 기부채납이라는 미끼를 통해 영구적인 시설운영권을 취득하고 독벌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복지재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의 위수탁관계를 통해 운영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운영주체의 공모를 통한 완전개방과 투명한 운영만이 장애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지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

이는 일반 종교재단들이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로, 그야말로 사회복지가 특정주체의 영원한 소유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역으로 취급되어 서도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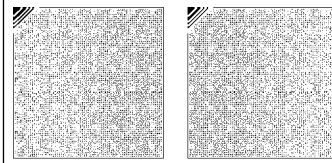
차제에 가톨릭사회복지회를 비롯한 종교재단들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무늬만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전면 포기하고, 막대하게 조성되는 종교후원금을 통한 후원사업에만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500만 장애인들은 종교재단에 의해 베풀어지는 시혜적인 복지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우리들이 당당한 주체가 되는 장애인당사자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스스로 지켜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 5. 20.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협회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한국대표단 출범

## 9개 장애인단체 소속 20여 명으로 구성

제8차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한국대표단이 출범했다.

당사국회의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이 협약에 따라 특정 주제를 정해 유엔본부에서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다.

올해의 주제는 15년 동안 진행한 새천년개발계획(MDGs)이 종결되면서 향후 개발 아젠다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주류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2015~2016년까지 한국의 주유엔대표부 오준 대사가 당사국회의 의장으로 선출돼 전 세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당사국회의 한국대표단 역량강화 교육.

오준 대사는 3월 하순 한국의 적극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20여 명의 대표단을 구성하고, 그 뒤 장애인단체들은 한 달 동안 준비해 5월 6일, 9개 단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를 단장으로 해 공

동대표를 선출했다.

이어서 한국대표단 소속 단체들은 절차에 따라 유엔 NGO 등록신청을 완료했다. 대표단은 6월 10일 유엔본부에서 사이드 이벤트로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 기술과 지역 사회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 대표단은 한국의 장애 운동 및 권익 발전 상황을 국제 사회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표단은 5월 한 달 동안 매주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국가는 154개국이며 이번 당사국회의에는 많은 비준국과 국제기구, NGO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장애인 편의증진 법률 개정안 발의

##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3년 주기 단축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1회씩으로 의무화하는 법률이 국회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기선(원주 갑) 국회의원은 5월 12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5년에 1회

씩 시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까지 건축물 준

공 단계에서 설치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준공 이후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개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철거하고 고치는 악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하라!

지난 대선에서 주요 여야 정당들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했다. 물론, 현 정부도 등급제 폐지를 공약했고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를 국정 과제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사회에 알려진 바로는, 보건복지부는 현행 6등급제를 우선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화한 다음 현 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 폐지로 간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등급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이 미적미적하는 사이 중증 장애인들은 중증 장애인들대로 또

경증 장애인들은 경증 장애인들대로, 자신이 받던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까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현행 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 장애에 특화된 서비스들이 경증 장애로 확대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 서비스가 축소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쪽은 중증 장애인들이다. 반대로, 경증 장애인들의 경우 민간에서 제공하는 할인제도가 경증 장애부터 적용 제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우려한다.

보건복지부는 하루빨리 등급제 폐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사회의 혼란과 불안감을 불식해야 한다. 그

러기에 앞서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제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 총량이 축소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대안이 어떤 것이라도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 축소 또는 서비스의 단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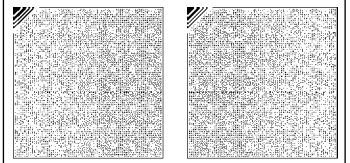
둘째,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어 제도 변경에 따른 부처 간 논의를 먼저 하여야 한다. 장애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제도 변경은 범정부적 차

원의 대응이어야 한다. 아울러 통신회사, 항공회사, 교통기관 등 민간 및 공공 서비스 기관들과의 사전 협의도 중요하다.

셋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준비한 대안을 즉각 공개하고 의견 수렴 및 공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장애 기능별 단체 등 소외되는 장애인 그룹이 생기지 않도록 전체 장애인 사회의 의견을 골고루, 널리 듣고 최종안을 결정하기 바란다.

2015. 5. 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여성의 독립과 안전을 말하다

##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동등한 관계 맺기에서 시작

세월호 참사 이후 1년이 흐르는 동안 한국 사회의 화두는 안전이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장성요양병원 화재와 지체 장애인 故 송국현, 중증장애인 故 오지석 씨의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약자의 재난이 잇따라 발생했다. 약자의 안전이 수면 위에 떠오른 가운데 (사)장애여성 공감 부설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이하 숨)이 ‘장애여성의 독립과 안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장애여성의 사고와 폭력 근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4월 23일 이룸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숨 조미경 소장은 “장애여성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독립할 수 없는 존재’로 보는 경우가 많다”고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여성 독립과 안전’ 토론회.

꼬집고 “독립을 하더라도 마을 공동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애여성에게 마을은 안전한 공간이기보다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날수록 사고에 노출되거나 사생활을 간섭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대한 지역 주민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밝혔다.

2013년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발달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 중 다

수가 아는 사람이었다. 그 중 가해자가 동네 사람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 소장은 “마을이 장애여성에게 안전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을 이유로 장애여성이 누군가의 보호 대상으로 예측되는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마을 구성원으로 주체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여성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성과 통제력을 넓힐 수 있게 소통하려는 자세를 동반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유리화영 성폭력상담소장은 “여성안심서비스와 같은 물리적 환경개선은 성폭력이 대부분 아는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볼 때 약자의 생활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고려할 것이지 성폭력 예방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어선 안 된다”며 “여성안심서비스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시행 이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림의료협동조합 전희경 여성학 전문이사는 “최근 봄을 타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다름을 포괄하지 않는 비장애-핵가족 중심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내의 주민들 사이에 위계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위계관계는 보호자와 피보호자를 낳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서로서로를 돌보는 것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 어린이통학버스 규정, 장애아동 안전에 문제

#### 7인승 휠체어리프트 장착 개조차량 통학버스 등록 건의

7인승 휠체어리프트 개조 차량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휠체어리프트를 장착한 개조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통학버스로 많이 사용하는 12인승 승합차에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할 경우 수용인원이 7인승으로 바뀌어 현행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이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 그동안 개조차량을 이용하던 어린이집들은 통학버스를 등록하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부딪혔다.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은 전국의 어린이집 중 2.37%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의 거주지

와 어린이집이 먼 경우가 많아 통학버스가 없으면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장애아동의 가족이 온전히 통학을 책임져야 하므로 부담이 커진다.

그뿐 아니라 7인승 휠체어리프트 개조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장애아동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는 아동들이 어린이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할 때 다른 차들은 일시 정지해야 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부모회의 박태성 부회장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개조한 차량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탑승 인원 기준이 아닌 장애아동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 가능

### 관할 보호 관서 방문 후 주민센터에 신청

지난해 11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상이자도 5월 6일부터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는 장애인 등록이 제한돼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1·2급) 특별 교통수단 이용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호서비스와 유사한 장애인 복지서비스(활동지원서비스, 자녀 교

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대여 등)는 제공이 제한된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는 우선 관할 보호 관서에서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호보상대상자 확인원을 발급받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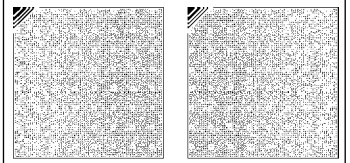
보호 관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장애등급 심사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상이등급 판정내용 확인을 위한 신체검사표를 보낸다.

보호 관서에서 확인원을 발급받고 동의서를 제출한다. 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원, 장

아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받게 된다.

장애진단서, 검사결과, 진료기록 등 장애등급심사 서류는 장애유형별로 다르므로 인근 주민센터에 문의 후 제출하는 것이 좋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초기 장애인 등록 신청이 집중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가 최장 90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리 군도』 발간 기념 북 토크

## 발달장애아들과 함께 차별과 편견을 넘어 국토대장정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을 걸을 수 없는 군도. 그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군도는 걸으면서도 세상의 꽃들과 구름과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즐거워했다. 이제는 나의 군도뿐만 아니라 천진난만한 이 세상의 모든 군도들이 다 함께 어깨 걸고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우리 군도』 중

『우리 군도』(이진섭 저, 후마니타스) 발간 기념 북 토크가 4월 2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저자인 ‘군도 아빠’ 이진섭 씨가 ‘군도와 나는 왜 걸었는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씨는 군도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갈 데가 없자 도보여행을 나섰다고 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제정을 내건 ‘군도와 함께 세상 걷기’였다. 2011년 3월 12일부터 40일



이룸센터에서 『우리 군도』 발간 기념 북 토크가 열렸다.

간 부산에서 서울까지 600km를 걸었다. 신문과 방송사에서 호응이 이어졌다. 길 걷기는 이후 2년간 네 차례 더 이루어졌다. 아버지는 길 위에서 일기를 썼다.

이 일기와 기사, 발달장애인법 해설, 같이 걸었던 사람들의 기고를 합쳐 책이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이 군도 덕분에 달라진 사람 중 한명이라며, 아들과

함께 걸으며 든 생각을 털어놨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좀 달랐던 것은, 간 만큼이 성공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표가

있되, 목표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우리의 목표는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니까요.”

군도 군은 아버지를 부를 때 “군도 아빠”라고 부른다. 틀림없는 본인 아버지지만 다른 아저씨를 부르는 것처럼 말한다. 그때마다 그는 군도 아버지임을 상기하게 된다고 한다. 아들이 스승 같다는 이진섭 씨. 아이를 만나면서 사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군도와 같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불혹을 넘기고 사회복지학을 배웠다. 그 길이 아들과 비슷한 아이들의 세상살이를 좀 더 살 만한 삶으로 만드는 길이 될 거라는 믿음도 생겼다고 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우리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잊지 않으려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마 우리 군도가 없었으면 이 운동을 안 했을 것입니다. 군도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길 위에 선 겁니다.”

## 장애등급제 등 핫이슈 언론보도 미약...

### 『포털사이트의 장애 관련 보도 살펴보기』 출간

포털사이트의 장애 관련 보도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2014년 한 해 동안 장애인 이슈에 대한 대중매체의 보도 경향을 분석해 『포털사이트의 장애 관련 보도 살펴보기』를 출간했다.

먼저 ‘2014 장애관련 이슈와 언론보도의 흐름 분석’에서 <네이버> 검색창에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국내 10개 일간지에서 총 8,830건이 검색됐다. 이는 2013년의 9,368건, 2011년 10,034건에 비해 줄어든 추세다. 검색 수는 줄었지만, 일부 언론에선 장애인단체와 공동 기획해 심층보도를 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를 호소하는 기사도 올라오는 등 장애인 문제를 바라보는 언론의 시각이 조금씩 전문화되고 있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출간한 『포털사이트의 장애 관련 보도 살펴보기』.

그러나 장애인의 스포츠나 문화예술 등에는 보도가 미미했으며, 장애인계에서 염원하는 장애등급제·장애연금 등의 핫이슈도 제대로 보도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한 포털사이트 모니터링은 <네이버>와 <다

음>을 대상으로 ‘소치 동계 장애인올림픽’과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뉴스를 분석했다.

그 결과 <네이버>는 ‘소치 동계 장애인올림픽’ 기간 별도의 관련 뉴스를 한 건도 게재하지 않았고, <다음>은 13건을 보도했다. 마찬가지로 ‘인천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도 포털 노출이 미약했다.

그 밖에 10개 중앙일간지와 4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한 비하양어 모니터에서는 총 406건이 검색됐다. 검색률이 높은 비하양어는 장님(134건), 병어리(110건), 절름발이(55건)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전국의 도서관 및 장애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실효성 지적

### 한자연, 전면 재검토 요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상임대표 안진환, 이하 한자연)는 5월 11일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허점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3년 11월부터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화재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응급 신고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고 예방 복지사업인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감지 성능이 떨어지고 오작동이 발생하는 등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성명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4년 9월 ‘중증장애인 응급알림e’ 사업과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수행기관과 행정기관을 통합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상 서비스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또 “2014년 7월 2차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을 홍보하고 있던 사업수행기관들은 복지부의 일방적 통합결정으로 지정취소가 되어 토해내기식 손실이 발생했다”고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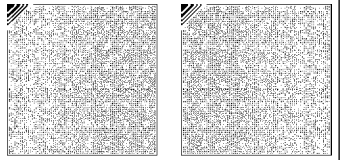
이어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감지 내용의 소방서 통보 실패 및 사진전송 오류, 지역 센터 연결 오류, 화재감지기 설치 위치 부적절’, ‘청각장애인 가구의 소리감지기 설치’ 등의 문제를 꼬집었다.

이중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에 소리로 경고하는 감지기를 설치한 것은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한자연은 중증장애인의 허무한 죽음을 막기 위한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최중증장애인의 안전 보장과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을 요구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생산 시설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역량을 투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집계결과 국가기관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서울시교육청, 공기업 등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우선구매 비율과 구매실적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각각 1위를 기록했다.

(단위 : 억원, %)

구 분	'13년	'14년		증감률 (B/A)
	구매액(A)	구매액(B)	총구매액 대비 비율	
계	2,958	3,530	0.91	19.3
국가기관	402	596	1.06	48.0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포함)	844	904	0.83	7.1
교육청	368	343	0.72	▲ 6.8
공기업 등	1,344	1,687	0.97	25.5

2014년도 기관종류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 보건복지부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4,457억 원 구매계획

## 지난해보다 26.2% 증가

공공기관이 올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계획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구매액인 3,530억 원보다 26.2% 증가한 4,457억 원어치를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예상액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 (39조 4,000억 원)의 1.13%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금액은 3,530억 원으로 전년 실적(2,958억 원)보다 19.3% 증가하는 등 매년 구매비율이 늘었다. 그러나 법정구매비율인 1%에는 미치지 못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은 2011년 0.55%, 2012년 0.49%, 2013년 0.72%, 2014년 0.91%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관별 구매비율은 국가기관이 1.06%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지자체와 공기업도 전년 대비 구매액을 7.1%, 25.5% 늘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액이 6.8% 감소했다. 복지부는 “교육청은 구매실적뿐만 아니라 우선 구매 비율도 타 기관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앞으로 적극적인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구매실적 우수·미흡 기관의 명단공표 범위를 기관유형별 상·하위 30%로 확대한다. 구매 우수기관에 표창도 수여할 방침이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적을 체

계적으로 집계하고 구매 담당자들이 쉽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향후 생산시설 지정서 유효기간을 부여하고 품질인증과 제품 포장 디자인 지원을

##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갖춰야

### 인권위 “휠체어 승강설비 장착한 고속·시외버스 한 대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장애인의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향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포함하고, 계단이 있는 버스에 연차별·단계별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하는 법령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

는 고속·시외버스 중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다. 인권위는 국가가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고속·시외버스를 이용할 때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고속·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은 고속 주행으로 인한 안전성 확보 문제, 고속에 적합한 교통수단 미개발, 재정여건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따라 시·군에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현재 휠체어 승차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차량을 생산하는 곳이 없으며,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 개발과 안전을 위해 기술적 문제 해결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 탑승할 수 있는 버스 운영을 위해서는 차량 구입과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고속 운영을 위한 저상버스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도로는 협소하고 규정 이외의 과속방지턱 난립으로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인권위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고속·시외버스의 종류를 반드시 저상버스로 한정할 필요

가 없다는 것이다.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를 개조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 사용자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호주·영국·미국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이용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규정을 의무화하고,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100% 설치하고 있다”고 해외 사례를 덧붙였다.

## 장애인공무원 수화통역 지원

### 근로지원인 등 예산투입 근거 마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4800여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근무할 수 있게 예산을 투입할 법적 근거가 생겼

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근

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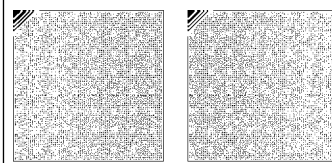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장애유

형별로 휠체어 이동, 물건 들기, 서류 대독, 정보검색, 수화통역, 전화 받기 등 부수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활동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또 보조공학기기는 점자 프린터와 시각장애인용 계산기, 화상 및 문자전화기 등을 포함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국장애

인고용공단 등 장애인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도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 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 서울지장협, 시교육청 내 장애인 고용 카페 운영

## 교육청과 업무협약, 장애인 고용 창출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손영호 협회장과 조희연 교육감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이하 서울지장협) 손영호 협회장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5월 13일 업무협약을 맺고, 특수학교 학생들의 직업 체험과 취업, 장애인들의 자립지

원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특수학교 학생 대상 직업 체험과 취업 알선 ▲장애인 자립지원과 직장 체험, 취업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장애인 취업 알선 기관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히, 이날 협약 이후 시행할 첫 사업으로 서울시 교육청 내 카페 '행복사랑방(가칭)'을 서울지장협에서 위탁 운영한다. 동시에 장애인에게 취업 기회와

직장체험을 제공하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작은 출발을 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또 장기적으로 교육대학교에 장애인들이 많이 진학해 장애인 교육과 진로에 폭넓은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손영호 협회장은 "이번 협약

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직장체험과 취업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민간협회와 교육청, 복지관 등 세 개 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긴밀한 협조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고용 창출 모델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어서 "특수학교에서 훈련한 발달장애인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번 업무협약의 의미를 밝혔다.

## 장애인수용자와 동병상련 한마당

### 광주지장협, 수감자 대상 연중 프로그램 시행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수용자와 동병상련 한마당'이 열렸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최남규, 이하 광주지장협)와 광주교도소(소장 신용해)가 4월 21일 개최한 행사에는 장애인수용자 60여 명이 참여해 함께 어울렸다.

기아자동차파트장협의회, 장애인과함께하는사람들, 성진이벤트 등이 함께 준비한 본 행사는 위문공연, 재소자 장기자랑, 다과회, 선물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장애인수용자와 출연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광주지장협 최남규 협회장은 "혹시라도 수용장애인들에



장애인수용자와 동병상련 한마당 기념 촬영.

게 불필요한 오해나 부담을 주지 않음에 감사했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수감 중 불편사항이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교도소 신용해 소장은

"광주지장협이 마련한 동병상련 한마당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 치러져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이 장애를 이유로 수감 중 불편사항이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 행복 나들이, 태안 여행

### 한국마사회, 인천 중구지회 지원



장애인 행복 나들이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중구지회(지회장 최수환)가 태안으로 '장애인 봄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한국마사회 인천 중구지사(지사장 황규환)의 지원으로 4월 22일 진행된 나들이에서 참가 장애인들은 태안의 경치를 감상하며 지역특산물을 먹는 등 봄날의 추억을 남겼다. 황규환 지사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행복나들이를 지원

하며 우리도 함께 행복해짐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수환 지회장은 "지체장애인들의 행복나들이를 선뜻 지원해주신 황규환 지사장을 비롯해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 상주시지회 문해교실 운영

### 3년간 교육 이수 시 초등학교 졸업 인정

작해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문해교실은 장애와 사회적 편견으로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 장애 어르신을 위해 매주 2회 한글 기초과정을 지도한다. 이와 더불어 영어, 수학, 미술, 음악, 체험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재미와 정서적 안정

을 도모할 예정이다.

상주시지회 측은 장애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좋지 않은 감정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학습자와의 개별 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이어서 고령 장애인은 학습 속도가 젊은 층과 달라 쉽지 않은 교육이지만, 한국문화

교육협회 상주시 문해교육사들이 문해교실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어 희망적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생들은 3년간 지속적인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부가 인정하는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영범 지회장은 "장애인이지만 공부에 대한 열의는 일반인 못지않은 모습에 놀랐다"며,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수업을 통해 사회문화적 환경에 적응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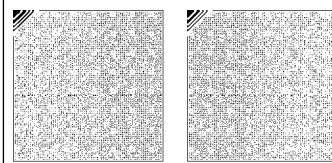
문해교실 교육생들의 수업 시간.

경북 상주시에서 문해교실이 열렸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상주시지

회(지회장 이영범, 이하 상주시지회)는 5월 13일 지체장애 어르신 13명을 대상으로 문해교실을 시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전북 한마음 축제 개최

## 장애인의 날 기념해 1400명 모여



전북 한마음 축제 기념 촬영.

전라북도 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모여 화합의 축제를 열었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형곤, 이하 전북지장협)가 개최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 축제'에 장애인과 전북도민 1400여 명이 모여 사회통합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은 4월 20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장애인과 비장

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전북'이라는 슬로건을 내 걸고 진행됐다.

전북지장협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의 재활 의욕 고취, 복지 증진,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1부 기념식에서 김형곤 협회장은 "공평한 기회 제공이 장애인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사실을 보편화시켜 사회통합을 실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장애인이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생활할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정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2부 한마음 축제는 가수 편승엽, 걸그룹 스위치 등 초청가수의 공연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어서 참가자들의 장기자랑이 펼쳐졌다. 무대에 올라 가수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네 바퀴로 함께 하는 희망 투어 익산시지회 중증장애인 나들이



익산시지회가 진행한 희망 투어 기념 촬영.

전북 익산 지역 중증장애인들이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최병철, 이하 익산시지회)는 4월 25일 지역 중증장애인들과 '네 바퀴로 함께 하는 희망 투어'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고객 중 중

증장애인과 보호자, 봉사자들이 참여해 함께 전남 화개장터, 쌍계사, 순천정원박람회를 방문했다.

최병철 지회장은 "중증장애인과 재가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벗어나 활력을 느끼는 나들이가 되어 기쁘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장애인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활동을 꾸준히 펼치겠다"고 전했다.

## 문경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 지역 장애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화합 증대



문경시지회가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다.

경북 문경시에서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가 열렸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문경시지회(지회장 박홍진, 이하 문경시지회)가 4월 28일 개최한 '2015년 어우러짐으로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동행 문경 지체장

애인 재활증진대회'에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120여 명이 모여 화합을 다졌다.

장애인들이 함께 나들이를 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친목과 화합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이날 재활증진대회에

고윤환 문경시장과 사회복지과 장애인계 직원들이 격려차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홍진 지회장은 "평소 사회 참여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 장애인들의 교류를 위해 이번 재활증진대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장애인을 대변해 지회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재활증진대회에서는 지체장애인들이 평소 걷기 힘든 곳도 문제 없이 갈 수 있도록 문경대 사회복지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휠체어를 밀어주었다. 다 함께 봄기운 가득한 청원상수허브랜드를 구경하고,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국내 유일의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 다녀왔다.

## 삼산이수 생활체육 볼링교실 개강

### 김천시지회, 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건강증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김천시지회(지회장 박선하, 이하 김천시지회)는 5월 14일 신음동 유성볼링장에서 '2015년 삼산이수 종목별 생활체육 볼링교실' 개강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강식에는 경북장애인 볼링협회이기도 한 박선하 지회장과 김천시청 복지위생과 전진

성 과장, 유성볼링장 이상원 대표, 김천시지회 임직원 및 삼산이수볼링교실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개강을 축하했다.

김천시지회는 지난 2월 경북장애인체육회에 삼산이수 생활체육교실 사업계획서를 신청해 선정되었으며, 국·도비 240만 원을 체육회에서 지원받아 사업

을 진행하게 됐다. 14일 개강식 날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볼링전문코치의 지도로 수업한다. 수강생들은 볼링을 통해 사회성 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재활 의지를 고취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박선하 지회장은 개강식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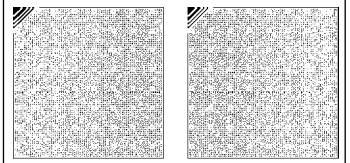


볼링교실 개강식에서 박선하 지회장과 수강생들이 볼링을 시작하고 있다.

"장애인들이 생활체육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

장애인 간의 상호 교류활동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시상식

## 김소영 「희망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대상



4월 29일 안동대학교에서 열린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 기념 촬영.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계발해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자주적인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이바지하기 위한 장애인종합예술제가 열렸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영식, 이하 경북지장협)는 4월 29일 안동대학교 국제교류관에서 '2015년 경북장애인종합예술제(이하 예술제)' 시상식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도내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시, 수필, 사진, 서예, 그림까지 총 5개 부문

별 작품을 공모했다. 총 270점 중 41명이 입상한 가운데 전 부문 대상은 칠곡군지회 김소영 씨의 수필 「희망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가 받았다.

김영식 협회장은 시상식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장애인의 진출을 늘려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며 “경북지장협은 장애인 문화예술복지를 위해 더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지역 입상자들은 '제28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자격이 주어진다.

## 대구,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열려

### 달서구지회 최종 우승

대구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김창환, 대구지장협)는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체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4월 21일 대구시민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지역 장애인 등 4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신체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준비한 4가지 종목으로 진행됐다.

풍선 기둥 세우기, 단체 줄다리기, 스탠딩릴레이, 휠체어릴레이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결과 달서구지회가 최종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체육대회의 모든 종목을 끝낸



체육대회에서 단체 줄다리기를 하는 참가자들.

후, 댄스 등 다양한 축하공연으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대회에 참여한 한 회원은 “장애인의 날에 매년 기념식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아쉬웠는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개최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남장복,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하이파이브”

경기도 성남시내에서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곽상구, 이하 성남장복)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4월 21~22일, 이를 동안 펼쳤다.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진행한 이번 행사는 사업체가 밀집돼 있고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 많은 시민을 만났다.

첫째 날은 성남 상대원동의 시복스 타워 앞에서, 둘째 날은 분당구 판교 유스페이스몰 광장에서 진행했다.

캠페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벌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하이파이브 이벤트, 장애인 고용차별을 깨자는 의미의 송판 격파하기, 장애인바리스타가

진행하는 커피 시음회, 장애인을 대할 때 기본 에티켓을 담은 정보지 제공,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OX 퀴즈 등을 진행했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휠체어에 탄 장애인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에 대해 긴장하는 반응이다가 웃는 얼굴로 “하이파이브”하는 외침에 맞장구 쳐주었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등 현장에서도 캠페인의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에서 OX 퀴즈를 진행하고 있다.

성남장복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지역사회

에 확산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충남남부장복-대전자생한방병원 MOU

##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협력



충남남부장복과 대전자생한방병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남도남부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과 대전자생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익)이 공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위한 건강지원 및 건강강좌 등의 사업 운영 ▲양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참여 협조 및 인적교류와 시설 이용 등에 관한 협조가 주요 내용이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복지관 강당에서 지역 내 장애인들을 위한 한방진료를 시행했다. 한의학 문진과 진맥을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침 시술 및 소화계통 가정상비약 등을 지원해 협약의 실효적 의미를 더했다.

남부장복 측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손을 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활발한 협력과 교류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자생한방병원은 2015년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대전·충청 지역의 유일한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봉사단체인 대전자생봉사단을 운영해 대전 및 충남지역의 의료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어린이 장애 이해 교육 실시

### 저소득 장애인 대상 직원 봉사활동



서산장복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했다.

충남 서산시 어린이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이해 교육을 받았다.

서산시장장애인복지관(관장 김준곤, 이하 서산장복)은 지난 4

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한 달간 서산시 관내 초등학교 847명을 대상으로 장애의 개념, 장애 유형별 에티켓, 인식개선 동영상 시청, 흰 지팡이와 휠체어 체험

등을 통해 장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돕는 교육을 실시했다.

서산장복 관계자는 아이들이 처음엔 생소해 했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쉽게 공감하고 편견을 지우는 모습이 보였다고 전했다.

김준곤 관장은 “어린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산장복 직원들은 4월 25일 인지면 야당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권 모 씨 가정을 방문해 오염된 벽지를 새 벽지로 교체하는 도배 자원봉사도 펼쳤다. 봉사에 참가한 직원 18명은 “거주환경이 열악한 장애인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입을 모았다.

## 진천군 재가장애인 나들이

### “봄과 함께 떠나는 도자여행”



진천장복이 진행한 재가장애인 나들이 기념 촬영.

충북 진천군 재가장애인들이 봄을 맞아 단체로 도자여행을 다녀왔다.

진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한명수)은 5월 12일 재가장애인 50여 명과 함께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봄과 함께 떠나는 도자여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장애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재가장애인과 가족에게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다. 즐거움을 느끼며 더불어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명수 관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재가장애인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유성장복, 어버이날 기념행사

###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유성장복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서 카네이션을 선사했다.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손성도)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버이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이번 행사는 국민은행 고객상담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민은행 대전고객상담센터 임직원과 복지관 직원이 하나 되어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중식과 다과를 제공했다.

손성도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효(孝) 사상과 어버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홍성장복, 장애인 이용자 잔치

### 지역사회 후원으로 풍성한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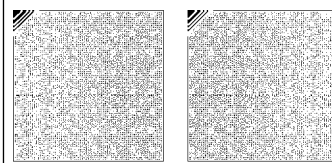
홍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호현)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잔치를 열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후원으로 풍성하게 진행된 이날 기념 잔치는 장애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 다과를 먹으며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이날 (주)서해환경에서 치킨

10마리, 한솔가구에서 남녀 양말 90세트를 후원했으며, 직원들이 정성껏 치킨·떡·다과를 준비했다.

김호현 관장은 “지역에 소외되고 어려운 장애인이 많다”며 “장애인의 날만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은 이웃으로 화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달성장북 ‘힐링푸드 스토어’ 화제

## 〈SBS 생활경제〉 방송...지역 응원 이어져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북)의 ‘힐링푸드 스토어’ 사업이 화제에 올랐다.

‘힐링푸드 스토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및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밑반찬 조리는 물론, 요리 자격증 취득, 특화된 웰빙메뉴(피자, 크로켓 등)를 개발

또는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과정을 모두 담고 있다.

이 사업은 달성장북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200만 원을 지원받아 지역 장애인의 삶의 개선에 이바지해 온 대표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SBS 생활경제-나누는 행복〉 제작팀이 4월 23일 달성장북을 취재해 30일

약 5분간 방송했다. 방송이 나간 뒤 지역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잇따랐다.

달성장북 관계자는 “힐링푸드 스토어에 동참하는 여성장애인들은 다 함께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다”며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SBS 생활경제〉 제작팀이 ‘힐링푸드 스토어’를 취재하고 있다.

## 처인장북-한국장애인평생교육 복지학회 MOU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처인장북과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의 업무협약 기념 촬영.

용인시처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처인장북)은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회장 박원희)와 ‘용인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문성 및 특성화

전략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월 6일, 처인장북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각각 정의철 관장과 김두영 교수가 참석해 ‘용인지

역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를 함께 하며 ‘장애인 및 지역사회의 욕구에 기반을 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하는데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정의철 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복지관 개관 10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용인 시민의 복지 욕구 해소와 효과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장북, 개관 14주년 기념식



정읍장북이 개관 1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정읍 지역 장애인의 전인 재활 및 사회통합을 위해 2001년 5월 3일에 개관한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형, 이하 정읍장북)이 1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개관기념일인 5월 3일 장애인

과 가족, 보조인력, 기타 관계자를 포함하여 200여 명이 모여 박수로 복지관의 성장을 축하했다.

기념식에 이어서 제공한 점심은 우성사료(대표 나기석)와 애니피쉬(대표 김종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두 업체는 2014년 12월부터 정읍장북과 인연을 맺었다. 두 업체는 ‘준다, 베푼다’가 아닌 ‘함께 한다’에 목적을 두고 일회성 봉사가 아닌 생활 속의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식사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박종형 관장은 고마움을 표현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좋은 정책개발과 프로그램 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답했다.

## 직업훈련실·주간보호센터 체육대회

### 김천장북 이용고객 유대감 강화



김천장북이 진행한 미니 체육대회.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북) 직업훈련실·주간보호센터에서 따뜻한 봄맞이 미니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5월 12일 강변 공원에서 명랑운동회로 진행한 체육대회는, 체육을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이용고객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했다. 판 뒤집기, 공굴리기 등을 함께 하며, 각각의 종목에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부여했다.

김천장북 관계자는 “체육대회 내내 서로의 웃음이 번져 즐겁게 화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꽃 피는 봄’ 자원봉사자 야외 간담회

### 영천장북,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모아



영천장북이 자원봉사자 야외 간담회를 진행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이 ‘꽃 피는 봄’ 자원봉사자 야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월 9일 영천

의 봄꽃 명소 중 하나인 영동교 둔치에서 평소 지역 장애인들을 위해 힘쓴 2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영

천장북 측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현하며 톡 터놓고 소통하는 시간을 보냈다.

간담회는 자연스럽게 둔치 일대를 산책하며 감성지수를 높이는 한편, 티타임을 통해 복지관 발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으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제근 관장은 “지역 내 장애인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과의 소통 또한 활발할 때 더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들과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현장스케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출발식.



김광환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조직위원장(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광환 조직위원장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출발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대회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폴리마론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5km 경쟁부문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신규 종목인 핸드사이클 하프 종목 선수들이 출발하고 있다.



도로 위를 힘차게 달리는 선수들.



시민들이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다.



홍보대사 탤런트 이훈이 참가자들과 5km 어울림부문을 완주했다





대회 1위를 차지한 스위스의 마르셀 혹 선수가 결승선으로 들어오고 있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이 폐회사를 하고 있다.



김광환 조직위원장이 홍보대사 걸그룹 타히티에게 위촉패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광환 조직위원장과 풀마라톤 수상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풀마라톤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마르셀 혹	스위스	1:23:32
2	타나 라왓	태국	1:27:32
3	소에지마 마사즈미	일본	1:27:34
4	요시다 료타	일본	1:27:38
5	호키노우에 코타	일본	1:27:39
6	바체노크 알렉시	러시아	1:27:40
7	하머락 토마즈	폴란드	1:27:41
8	쿠보 코조	일본	1:27:42
9	홍석만	대한민국	1:29:13
10	리 청밍	중국	1:31:55

풀마라톤-T52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이봉준	대한민국	2:07:37
2	마츠모토 나오키	일본	2:07:42

풀마라톤(여)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마징	중국	1:49:10
2	압디카리모바	러시아	2:06:39
3	코체로바 나탈리아	러시아	2:06:43
4	김수민	대한민국	2:08:54

풀마라톤(국내)		
순위	성명	기록
1	홍석만	1:29:13
2	이기학	1:37:06
3	이윤오	1:48:29
4	홍수화	1:48:31
5	유현대	1:54:42
6	이봉준	2:07:37
7	김수민	2:08:54
8	윤현제	2:15:48
9	강창균	2:34:07

하프마라톤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유병훈	대한민국	0:50:12
2	시마다 카즈히코	일본	0:50:13
3	와타나베 슈스케	일본	0:51:54
4	히로미치 준	일본	0:54:20
5	야마구치 사토시	일본	1:00:46
6	평 원기	영국	1:02:19
7	이우찬	대한민국	1:08:10
8	토미카와 후미오	일본	1:08:17
9	타케히로 이이지마	일본	1:22:23
10	타케무라 코키	일본	2:09:49

하프마라톤-T52			
순위	성명	국적	기록
1	타케히로 이이지마	일본	1:22:23

하프마라톤(국내)		
순위	성명	기록
1	유병훈	0:50:12
2	이우찬	1:08:10

핸드사이클		
순위	성명	기록
1	이인제	0:49:15
2	김용기	0:49:26
3	정수환	0:50:29
4	신의현	0:50:32
5	조항백	0:50:33
6	이도연	0:50:47
7	최기석	0:51:22
8	최종건	0:51:49
9	양정관	0:51:49
10	김종석	0:53:11

5km(남)청년부-T51/T52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노병일	경북	00:24:34:02
2	전경민	제주	00:24:49:63
3	김수민	대구	00:30:33:30

5km(남)청년부-T53/T54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이동렬	대구	00:17:28:24
2	오기석	경기	00:18:23:11
3	김호용	제주	00:19:39:80

5km(남)장년부-T51/T52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장용환	경기	00:27:46:60
2	윤성환	충남	00:31:37:71
3	이규선	경북	00:32:45:34

5km(남)장년부-T53/T54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엄찬섭	충남	00:18:04:25
2	임금천	인천	00:18:49:79
3	이상권	경북	00:21:47: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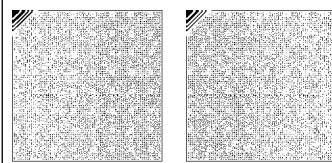
5km(여)청년부-T51/T52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이정아	충북	00:48:58:08

5km(여)청년부-T53/T54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전미석	인천	00:21:31:63
2	김세정	광주	00:24:54:54
3	한미영	제주	00:27:25:29

5km(여)장년부-T51/T52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함옥희	대전	00:35:41:64

5km(여)장년부-T53/T54			
순위	성명	지역	기록
1	이종례	충남	00:24:36:56
2	장정옥	경기	00:28:55:81
3	진영림	제주	00:33:08:18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월계관, 마르셀 훅

## “해 보기 전에 포기 말고, 도전하세요”

“만약 무엇에서 이기고 싶다면 100m를 뛰어라. 그러나 진정 무엇을 경험하고 싶다면 마라톤을 뛰어라.”

1952년 헬싱키올림픽의 마라톤 영웅 에밀 자토펙은 이렇게 말했다.

마라톤은 우리 인생과 닮았다고들 한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여러 번 고비가 오고 또 지나간다.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서 몇 번이고 찾아온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 사람, 대회 최고기록(1시간 20분 52초) 보유자인 스위스의 마르셀 훅(Marcel Hug, 28) 선수를 만났다.

**Q)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대회에도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소감은?**

A) 서울은 좋은 기억이 많다. 지난 대회에 이어 이번 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해 행복하다.

**Q)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데, 참가하게 된 계기는?**

A) 서울 대회는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회이기 때문에 선수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다. 대회를 선택할 때 코스도 중요한데, 서울은 레이스를 펼치기에 불편함이 없으며 안전하게 속도를 낼 수 있어 좋다.

**Q) 이번 대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A) 스위스에서 따뜻한 봄을 보내며 페이스를 끌어올렸다. 집 근처에 둘레가 21km인 호수가 있는데, 주로 그곳을 돌며 훈련했다. 호수를 한두 번 도는데 오르막과 내리막이 섞여 있어서 마라톤 훈련에 좋다. 또 체육관 안에서는 상체운동을 집중적으로 한다. 일주일에 6일 정도 훈련을 한다.

**Q) 42.195km에 달하는 풀마라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고 말할 정도로 힘든 종목이다. 마라톤을 시작한 계기는?**

A)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다. 다른 운동도 많이 해 봤는데 특히 육상에 끌렸다. 빠르게 달리는 동안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것이 시원해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휠체어육상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마라톤을 하겠다고 마음먹지는 않았다. 42.195km는 너무 길지 않은가.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는 재미가 있었다. 너무 버겁지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우승한 마르셀 훅.

않게, 조금씩 더 긴 코스를 도전하면서 마침내 육상의 꽃인 마라톤에 도전할 수 있었다.

**Q) 마라톤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족의 반응은?**

A) 내가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가족이나 지인이 특별히 놀라거나 걱정하지는 않았다. 스위스에 다른 휠체어마라토너들이 있으므로 그들처럼 훈련하고 경기를 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다. 부모님은 마라톤을 하면서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이겨내고 성취하는 아들을 보면서 더 좋아하셨다.

**Q)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땐 없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A) 낙천적인 성격이라 행복할 때가 많아서 그런 감정이 든 적은 별로 없다. 물론 훈련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땐 2~3일 정도 휴식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휠체어마라톤이 내 직업이란 것을 상기시킨다. 내게 휠체어마라톤은 취미가 아니다. 직업을 갖고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겨내며 하는 것처럼 나도

지치더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 일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은 없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프로다.

**Q) 마라톤을 하는 데 가장 힘이 되는 사람은?**

A) 가족이다. 대회에서 우승하면 함께 기뻐하며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물론 경기를 하다 보면 늘 1등을 할 수만은 없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 가족은 평소와 똑같이 나를 대한다. 조금 걱정하긴 하겠지만, 나를 믿기 때문에 티를 내지 않는다. 나는 그런 가족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 힘을 낸다.

**Q) 스위스에서 휠체어마라톤이 인기가 있는지?**

A) 인기 있는 편은 아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대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는다.

**Q) 스위스에서 휠체어마라톤이 활성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가 된 비결은?**

A) 우선 난 신체적으로 긴 상체와 팔을 가지고 있어서 유리하다고 생각

한다. 또 훈련을 위한 훌륭한 시설과 스폰서, 좋은 코치들이 있기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Q) 자국의 휠체어마라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이 있다면?**

A) 몇몇 주니어 선수들이 있는데 특히 소녀들이 많다. 정부 차원에서 주니어 선수들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도 참여해 돕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

**Q) 훅 선수는 많은 스위스 주니어 선수들에게 롤모델일 것 같은데 본인의 롤모델은?**

A) 스위스의 프로 테니스 선수인 로저 페더러다. 그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해 역대 최장 연속 랭킹 1위 기록을 세웠다. 그의 화려한 실력과 매너, 자기관리 능력까지 모두 존경한다.

**Q) 훅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휠체어마라토너로 알려졌다. 자국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A) 가끔 도시를 돌아다니면 알아보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유명하진 않다. 누군가 인사하면 반갑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거울같이 코팅된 헬멧을 쓰고 빨리 달린다고, 스위스의 은색 탄환으로 부른다.

**Q) 한국에도 휠체어마라토너가 많지 않다. 마라톤은 워낙 힘든 종목이라는 인식도 강한데, 시작을 망설이는 선수들에게 조언해 달라.**

A) 우선, 트랙에서 짧은 거리를 연습하는 것이 좋다. 언제든 쉴 수 있고 많은 바퀴를 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도로로 나가 5km, 10km... 점점 거리를 늘려가라. 나 자신도 풀 마라톤으로 훈련을 자주 하지는 않는다. 해 보기 전에 포기하지 말고, 충분히 준비해서 도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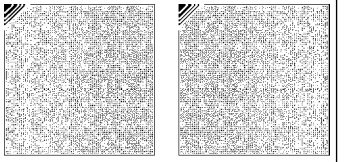
**Q) 향후 계획은?**

A) 가장 우선하는 목표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장애인올림픽 우승이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도 우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Q) 마지막으로 한국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나를 비롯해 참가한 모든 선수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한국은 여러모로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다. 내년에도 참가해 좋은 경기 펼치겠다.





# ‘장애인복지 & 보조기기 박람회’ 대단원

## 100개 부스 설치 운영, 장애인 등 3천여 명 몰려 성황

국내 최초로 장애인 분야만을 특화한 장애인 전문 박람회 ‘2015 장애인복지 & 보조기기 박람회(이하 Able EXPO 2015)’가 지난달 29, 30일 양일간 서울 대치동 학여울역에 위치한 SETEC 제3관에서 열렸다.

Able EXPO 2015(대회장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는 복지정보센터가 주최하고 보조기기 전문 언론인 웰페어비즈 주관으로 열렸다.

보조기기 전문기업 50여 개를 비롯하여, 100개 규모의 부스가 설치 운영됐으며 2일간 장애인 관람객 및 전문가 등 3천여 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았다. 또한 각 분야 보조기기 전문기관인 국립재활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재활공학연구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재활복지공학회, 한국보조공학사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박람회 위상을 높였다.

행사 첫날인 지난달 29일 12시 30분에 열린 개막식에는 대회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양동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장, 김종인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박덕경 행복복지재단 이사장, 박성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장, 손영호 서울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등이 참석했다.

대회장인 심재철 의원은 대회사에서 “지금까지 보조기기 전시회가 실버 고령친화 관련 전시회나 유사 전시회의 구색 맞추기 용으로 취급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기업체 모두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나아가 장애인들이 부담 없이 쉽게 보조기기를 활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Able EXPO 2015 참여를 계기로 앞으로 보조기기 산업 발전 등 장애인 복



대회장인 심재철 의원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Able EXPO 2015 개막 테이프커팅 장면.

지에 높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기존 재활보조기기는 물론 최첨단 재활로봇과 다량의 IT보조기기 전시 등 차별화된 첨단 보조기기 전시회로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특히 국립재활원이 운영한 재활로봇관은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관련 로봇인 재활훈련 및 상지보조기기와 재활로봇보급사업 관련 로봇인 의료재활로봇 및 일상생활보조로봇, 그리고 재활보조기술연구분야인 장애인 운전 및 재활훈련기기 등을 전시, 참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국립재활원의 재활로봇보급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개발한 재활로봇을 보급함으로써 의료시장진입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보행재활로봇 Walk bot\_S, 식사보조로봇 Care Meal 등 3여 년 동안 보급한 우수한 국산 재활로봇 6종을 선보였다. 또한 재활로봇 전문기업인 NT메디는 하체장애인용 웨어러블 보행로봇을 비롯해 식사보조로봇 Care Meal, 상체장애인용 로봇팔 CareLink, 힘센서 Dynpick 등을 선보였으며 네오팩트는 손재활 로봇으로 관심을 끌었다.

정보통신기기는 올해 정부 보급품목으로 선정된 총 74종의

제품이 모두 전시됐다.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용 43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8종 △청각·언어장애인용 23종 등이다. 이밖에 20여 개 IT보조기기 자체 개발한 IT 보조기기가 총망라됐다.

전시회 참가자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통신보조기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직접 체험하는 기회도 가졌다.

분야별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화면낭독s/w 센스리더, 시각장애인용 독서확대기 ‘클리어뷰’ ‘메조’ ‘다빈치’ ‘E-bot’, 점자정보단말기 ‘한소네’, 광학 문자판독기 ‘소리안썬더’ 등의 제품이 있었다. 정보통신 보조기

기 대표적 기업인 힘스인터내셔널은 자체 독립부스를 마련, 다양한 시각장애인 보조기기를 선보였다.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특수키보드 ‘스마트나부4AT’ ‘엔에이블러 조이스틱’, 독서보조기 ‘페이지터너 리더블3’, 터치모니터 등이, 청각장애인용으로는 영상전화기 ‘비쥬폰’, 의사소통보조기기 ‘마이토키 스마트’ ‘보이스탭’ ‘오케이톡톡’, 언어훈련 S/W ‘소리자람’ ‘스피치미러’ ‘한글짱’ 등이 전시됐다. 이밖에 청각장애인용 골전도형 음향증폭기, 음향헤드셋 등도 관심을 끌었다.

IT보조기기 개발 보급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도 부스를 마련, IT보조기기 전시와 함께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 개발보급 사업 및 소외계층 정보화 사업 등을 홍보했다.

Able EXPO 2015에서는 또 다양한 종류의 재활보조기기와 이동기기가 장애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휠라인은 럭비·농구·배드민턴·테니스·댄스 등 종목별 스포츠형 휠체어를 전시했으며 유진헬스케어는 체형복제 몰딩이너 등 자세보조용구와 휠로피아를 전시했다. 첨단 기립형 전동휠체어 및 차량개조장치, 리코휠체어, 징거체어(Zinger chair), 헤스테나의 전동휠체어용 발열담요도 인기상품으로 부상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보조기기 박람회 개최 및 보조기기 산업 발전을 지원한 분들에 대한 감사패 및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Able EXPO 2015 대회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 서병조 원장 △국립재활원 이성재 원장 △재활공학연구소 문무성 소장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박성권 회장 △힘스인터내셔널 유병탁 대표이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국립재활원 송원경 단장 △재활공학연구소 류제청 연구팀장 △(주)휠로피아 김윤제 대표이사 △서울시장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김영배 원장 △재활공학연구소 강성재 책임연구원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 대구에 흐르는 ‘달구벌칸타빌레’

## 매주 우쿨렐레와 합창교육



대구달구벌종합복지관에서 우쿨렐레와 합창교육을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강재형)은 장애인의 문화 예술교육의 하나로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리, 달구벌칸타빌레’를 시작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공모사업 중 2015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실시하는 달구벌칸타빌레는 5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한다. 대상자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있는 장애인 12명이며 1시간씩 각각 우쿨렐레와 합창을 배운다.

5월 7일 첫 강의 시간, 칸타빌레 교육생들은 처음의 설렘을 안고 하나라도 놓칠세라 강의에 귀 기울이며 집중했다. 이윽정 강사는 처음 접하는 교육생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악기의 명칭부터 코드 잡는 법 등을 천천히 설명했다.

이어진 합창은 김동희 강사의 선창으로 다 함께 노래를 시작했다. 김동희 강사는 교육생들이 처음이지만 의욕이 높아서 꾸준히 연습하면 향상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달구벌칸타빌레를 추진한 강재형 관장은 “지역의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하여 장애인의 역량을 발굴하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추진배경을 전했다.

복지관 측은 11월 12일 사업을 종료한 다음 날인 13일 발표회를 열 계획이다. 발표회 이후에도 동아리로 전환해 연습장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공연을 연계해 스스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청각 · 뇌병변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시행

### 국립중앙도서관, 전국 11개 공공도서관 운영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임원선)은 ‘청각 · 뇌병변 ·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 11개 도서관에서 운영한다.

지난해 전국 5개 공공도서관과 한국농아인협회 지역 지부와 함께 청각장애인 대상 ‘수화대면독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에 올해에는 장애유형을 확대하여 전국 도서관으로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비장애인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은 이미 공공도서관의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아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 독서프로그램은 20% 미만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15개 장애유형 중 도서관 이용, 지식정보 접근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 뇌병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11개 운영도서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뇌병변·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운영도서관 일정

구분	도서관명	운영기간
청각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서대문구립이진하기념도서관	9.3~11.5(목)
	대구안심도서관	5.6~7.22(수)
	경기도립중앙도서관	8~10월(월)
	금천구립시흥도서관	5~8월(목)
	부산시민도서관	5.12~7.14(화)
뇌병변장애인 독서프로그램	가평군립조종도서관	5~10월(목)
	화명도서관	5.20~7.22(수)
	하동도서관	6.2~8.4(화)
발달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전북교육문화회관	5.13~7.15(수)
	인천계양도서관	5.8~7.10(금)
	나누리도서관	5.12~7.14(화)

※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청각 · 뇌병변 ·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독서프로그램 일정 ©국립중앙도서관

수요자인 장애인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장애유형별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도서관으로 보급 · 확산하여 장애인들이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미술관에서 수화로 해설

### 청각장애인을 위한 토요 정기 ‘맞춤형 전시해설서비스’

서울시립미술관은 6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각장애인 대상 ‘토요 정기 맞춤형 전시해설서비스’를 진행한다.

4월 25일부터 시작한 청각장애인 대상 맞춤형 전시해설서비스는 주요 기획 전시 시 도슨트와 수화통역사를 연계, 전시해설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들의 문화향유와 미술관 접근 편의성을 위해 마련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기존의 평일 맞춤형 전시해설서비스는 예약제로 운영했지만, 토요 정기 맞춤형 전시해설서비스는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운영한다. 또 청각장애인 관람자가 없을 시에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진행하는 ‘맞춤형전시해설서비스’. ©서울시립미술관

평일 전시해설서비스 이용은 홈페이지(sema.seoul.go.kr/korean)와 전화(02-2124-8925)로 예약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립미술관은 전시해설서비스를 위해 전시 도슨트 및 서울시립미술관 직원을 대상

으로 서울수화전문교육원 지역연계프로그램을 활용한 수화교육을 10회씩 진행하고 있다. 미술관 측은 “도슨트 소개 및 미술관 안내 등 의사소통을 위한 수화교육을 통해 청각장애인의 관람편의를 돕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제16회 장애인영화제 경쟁부문 출품 공모

### 장애 소재 혹은 장애인 참여 작품 6월 26일까지

장애인영화제(PDFF)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장애인영화제를 빛낼 경쟁부문 작품을 공모한다. 작품공모는 4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 9주 동안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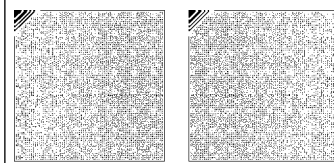
장애인영화제 작품 공모 출품자격은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 혹은 장애인 당사자가 영화 제작에 참여해 만들어야 하며, 2013년 1월 이후 제작한 신규작품으로 한정한다. 장르, 형식, 길이 구분 없이 출품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은 심사 후 우수한 작품을 선별해 영화제 기간 상영한다. 시상내용은 대상 1편 300만 원, 우수상 2편 400만 원(1편 당 200만 원), 인권상 1편 150만

원, 신진감독상 100만 원, 특별상 1편 5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출품신청서 다운로드 및 출품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www.pdf.or.kr)를 참조하거나 장애인영화제 사무국(02-2038-3817, pdflove@hanmail.net)으로 문의하면 된다.

2000년 시작한 장애인영화제는 문화적 접근이 어려웠던 장애인에게 한글자막, 화면해설이 삽입된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을 통해 환경 제한 없이 영화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겐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작의 당위성 등을 알리고 있다.



#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종합 5위

## 전 세계 58개국 참가...종합 우승 러시아

‘올림의 빛으로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가 5월 17일 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종합 우승은 전 종목에 걸쳐 총 112개의 메달(금메달 46개, 은메달 35개, 동메달 31개)을 골고루 획득한 러시아가 차지해 시각장애인스포츠 강국임을 다시한 번 확인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금16 은11 동11), 중국(금9 은15 동9)이 2·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9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종합 5위를 달성했다. 애초 목표했던 10위를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특히 시각유도부문에서 신예 서하나(여자 -57kg급), 이정민(남자 -81kg급), 진송이(여자 -63kg급)가 금메달 3개를 합작했다. 이들은 시각유도 국제무대의 데뷔전이나 다름없는 이번 대회에서 최정상에 오르며 2016 리우패럴림픽의 전망을 밝게 했



개회식에서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다. 지난 16일 유도 남자 단체전에 출전한 대표팀은(박종석, 윤상민, 이정민, 박준원, 최광근) 결승에 진출했지만, 러시아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볼링은 패럴림픽 종목은 아니지만,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며 지

난해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한국팀 강세 종목의 참면목을 보여주었다. 그 외에 입상은 못 했지만 처음 출전했던 체스와 쇼다운 종목에서 값진 경험을 했고, 국제무대에서 시각장애인스포츠의 경기력 수준을 확인하는 대회이기도 했다.

또 대회 시작부터 관심을 모았던 2016리우패럴림픽 출전권과 쿼터포인트 획득을 위한 종목은 유도만이 남자 4명, 여자 2명의 출전을 확정했다. 골볼과 수영은 출전권과 최소자격 기준 확보를 위해 차기 IPC 인정 대회 추가 출전이 필요하게 됐다. 육상에

출전한 배유동 선수와 오테일 선수는 2016리우패럴림픽 출전을 위한 IPC 기준기록은 확보했으나 아시아지역 국가 쿼터 수를 고려해 참가가 확정된다.

한편 이번 대회는 서울, 경기, 인천 일대 11개 경기장에서 전 세계 58개국 1600여 명의 선수단이 총 9개 종목(육상, 체스, 축구, 골볼, 유도, 역도, 쇼다운, 수영, 텐핀볼링) 473개의 메달 주인공을 가렸다. 그 밖에 국제임원 100명, 대회회원 2300명과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성공적인 대회 진행을 도왔다.

폐회식에서 래먼트 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치러진 데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손병두 대회 조직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됐다”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다시 만날 희망으로 삼아 4년 뒤를 기약하자”고 전했다.

## 충청남도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

### 휠체어 대전스콜피언스, 지적장애 홍성군장애인체육회 우승

지역 장애인농구 활성화에 역량을 기울여 온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북)은 5월 9일 제6회 충청남도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을 개최했다.

충청남도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은 충남 휠체어 농구와 지적장애인 농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발굴을 위해 휠체어 농구와 지적장애인 농구 두 개 부문으로

경기를 펼치는 대회다.

이순신 병상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회장 안희정)와 아산시장애인체육회(회장 복기왕)가 주최하고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충청남도장애인농구협회(회장 김선화)가 공동 주관하며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장애인농구협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휠체어 부문은 대전스콜피언스가 아산휠스파워농구단과의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대전스콜피언스 김준오 선수는 “우승을 거둬 기쁘다”면서 “꾸준히 운동해 다음 대회도 우승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적장애 부문은 토너먼트로 결승에 올라온 홍성군장애인체육회와 천안 점프농구클럽이 경합을 벌여 홍성군장애인체육회



아산장북이 충청남도 장애인농구클럽대항전을 개최했다

가 승리했다.

각 부문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인 선수로는 박지원(대전스콜피언스)과 김현준(홍성군장애인체육회)이 MVP를 수상했다.

대회를 주관한 아산장북 이창

호 관장은 “경기에 최선을 다해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모든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에는 더 향상된 실력으로 모여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개관

### 장애인 체육참여환경 마련

국내 최초의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인 광주광역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광주센터)가 5월 7일에 개관했다. 총 사업비 76억 원(기금 50억 원, 시비 26억 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한 광주센터는

2012년에 착공해 2015년에 완공했다.

광주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

체육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문체부는 2012년부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광주센터 건립을 지원해 왔다.

광주센터에서는 각종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엘리트체육 및 동호인 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센터는 비장애인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어울림 공간의 역할도 하게 된다.

이번에 개관한 광주센터 이외

에 2016년 제주센터가 건립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부산(사하), 인천(연수), 대전(유성), 경기(시흥), 충남(아산)에서도 센터 건립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2017년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통한 체육 균형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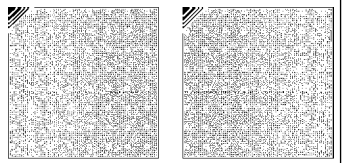
2014년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을 통해 장애

인들이 얻게 되는 효과는 ▲건강 및 체력 증진(48%), ▲재활 치료 효과(15.7%), ▲스트레스 해소(1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육 활동이 삶의 질 전반에 대한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센터 개관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LA시 보행로 장애 친화적 공사 합의

## 장애인 단체들, 시 정부 상대 집단소송 승소



보행로 중 42%가 망가진 LA시. ©Los Angeles Times

미국 LA시가 보행로를 장애인 친화용으로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LA가 미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향후 30년간 13억 달러를 투입해 장애인 보행

로 불편함이 없도록 깨진 보도블록을 보수하고, 보행용 도로를 고르게 단장하기로 했다.

4월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LA시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단체들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친화적인 보행용 도로 개선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LA시와 시의회는 내년부터 예산 3,100만 달러를 투입해 보행용 도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배경에는 캘리포니아 주 장애인 단체들이 주 정부와 LA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장애인 단체들은 “보행로 보수가 제대로 안 돼 장애인이 쇼핑센터·극장·공원 등에 가기 어렵다”며 “깨지고 갈라져 못쓰게 된 보행로를 보수하지 않은 것은 연방법을 어긴 것”

이라는 내용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A시는 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패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연방법인 ‘장애인우대법’은 장애인들이 음식점·공원·쇼핑센터·극장 등 공공 편의시설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LA의 경우 4300마일에 이르는 보행로 중 42%가 망가진 상태다. 시는 앞으로 시 전체 인도에 곡선형 램프를 설치하고, 부서지거나 나무뿌리가 솟아 파손된 인도를 수리한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데 가장 큰 과제는 장애인 친화용 보행로를 조성에 드는 자원 마련이다. 지방정부 재정에 매년 3,100만 달러가 소요되는 대공사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미구엘 산타나 LA시 행정담당관은 “예산 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가 호전되고 세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방치됐던 도로정비에 대한 자원 마련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청각장애인 백악관 비서관 탄생

### 백악관 측 “장애 아닌 능력으로 발탁”

여성 청각장애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접견비서관으로 발탁됐다.

화제의 주인공은 리아 카츠-헤르난데즈(27)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무실을 드나드는 모든 손님을 맞아 사전 약속을 확인하고 안내하는 일을 수행한다.

백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려면 외국 국가원수든, 미국 정부 장관이든 헤르난데즈를 거쳐야 한다. 면담뿐 아니라 대통령과 통화를 하려는 사람도 그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대

통령이 주재하는 회의 참석자를 소집하는 것도 그녀의 업무다.

헤르난데즈는 대통령 집무실뿐 아니라 부통령 집무실이 있는 루스벨트 행정동 등 백악관 주요 건물의 안내를 모두 책임지고 있다.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인 고강영우(1944~2012) 박사가 백악관 장애위원회 정책자관보를 지낸 적은 있지만 청각장애인이 백악관에서 근무하기는 헤르난데즈가 처음이다.

선천적 청각장애인인 그녀의 부모도 모두 청각장애인이다. 박

사학위를 소지한 아버지와 사회복지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헤르난데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캘러뎡 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백악관은 헤르난데즈의 업무를 돕기 위해 수화통역인을 곁에 두도록 배려했다.

헤르난데즈는 N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청각장애인으로 백악관에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자랑스럽고, 청각장애인들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접견비서관 헤르난데즈. ©NBC

화로 말했다.

그녀가 오바마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캠프에 합류하면서부터다. 헤르난데즈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알리는 일을 자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장애인들을 취임식에 초

청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었다. 이후 그녀는 백악관 인턴을 거쳐 2년간 미셸 오바마 여사의 공보비서로 일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헤르난데즈가 발탁된 건 그녀의 능력 때문이지 장애 때문이 아니었다”며 “일을 잘한다”고 말했다.



제프 헨슨의 작품. ©제프 헨슨 페이스북

시력을 거의 잃은 미국의 젊은 시각장애인 화가가 그림 수익을 기부해 화제다.

미국 캔자스시티에 사는 제프 헨슨(21)은 어린 시절 신경섬유종증 진단을 받았다. 이 병에 따른 합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었다.

시각장애 이외에 지적장애도 가진 그는 그림을 통해 세상과 만났다. 어머니는 아들이 힘겨운 항암치료에서 벗어나도록 자그마한 카드에 수채 그림물감을 사용해 그림을 그리도록 권유했다. 직접 만든 카드에 감사의 뜻을 담아

## 그림 수익 기부하는 시각장애인 화가

### 워런 버핏, 엘튼 존 등 구매...자선기금 마련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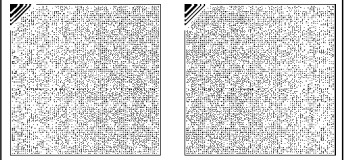
항암치료를 격려해 준 지인들에게 돌릴 예정이었다. 냉장고에 자석과 함께 붙이는 어린이 추억용 작품 정도로 여긴 이 카드가 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자 부모는 자택 지하실을 화실로 고쳤다.

헨슨은 작업실에서 캔버스에 끈적거리는 물질을 풍부하게 바른 뒤 마르면 그 위에 화사한 색으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약 1400점을 완성한 그의 그림에는 꽃과

풀, 하늘과 구름 등 자연이 독특하게 되살아난다.

시각장애인의 작품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헨슨은 일약 유명 인사가 됐다. ‘투자의 귀재’인 워런 버핏을 필두로 팝가수 엘튼 존·빌리 조엘, 영화배우 수전 서랜던 등이 4,000달러(약 443만 원)에서 거래되는 그의 그림을 사갔다. 싸지 않은 가격임에도 이미 6개월치 주문 물량이 밀렸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헨슨은 한 해 작품 활동으로만 5만 달러(5,534만 원)를 벌 만큼 성공적인 화가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스무 살이던 지난해 그림수익 100만 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의 작품은 자선 경매에서 자주 2만 달러라는 높은 금액에 팔리기도 한다. CBS 방송은 그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선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고 전했다.



# 안전불감증, 얼마나 더 많은 고귀한 인명이 사라져야 하는가?

지체장애인의시설중앙지원센터 홍현근 국장

##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

세월호 침몰 대참사가 난 지 벌써 1년이 훌쩍 흘렀다. 침몰 사고의 물리적 원인은 유속이 급한 지역을 운행함에 필요한 선장, 항해사, 조타수 등 승무원들이 전문성 없는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이 다수를 차지한 데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그 외에 정량 이상의 화물을 선적한 것, 선박의 수평을 맞추는 평형유도장치인 평형수를 정량인 1,694톤의 절반도 안 되는 761톤으로 줄여 놓은 것, 수난구호법에 선박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승무원들은 의무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선원법·선박안전법에 규정된 선장의 의무인 승객 퇴선 후 퇴선 해야 한다는 재선 의무를 위반한 것들도 사고의 큰 원인일 것이다.

또한, 이 사건은 버크헤드 정신이라는 고귀한 불문율을 깬 부끄러운 사건이기도 하다. 1852년 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처, 영국 해군 수송선 버크헤드 호가 암초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을 때 승객은 영국 73보병연대 소속군인 472명과 그들의 가족 162명이었다.

그러나 구명보트는 3대뿐으로 180명만 탈 수 있었다. 함장 세튼 대령은 "그동안 우리를 위해 희생해 온 가족들을 우리가 지킬 때다. 어린이와 여자부터 탈출시키자"고 명령했고, 함장을 비롯한 군인 472명은 구명보트를 향해 거수경례를 하며 배와 함께 가라앉았다. 이때부터 영국 사람들은 큰 재난을 당하면 버크헤드를 기억하자고 말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정신은 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고귀한 정신으로 다시 떠올랐다. 우리나라 세월호 사고에서만 제외하고 말이다.

최근 사상 초유의 예비군 총기 난사로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이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다. 피해자들은 22세에서 25세로 아직 삶을 제대로 펼쳐 보지도 못한 꽃다운 젊은이들이다. 현재 각 언론은 총기를 난사한 개인이 B급 관심병사였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

을 부각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나라의 관리부실이나 나라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성격 문제로 몰고 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현행 매뉴얼대로, 아니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 즉 안전불감증이 부른 사고로 봐야 할 증거가 많이 나왔다.

매뉴얼에 따르면 옆드려 쏘 자세에서 몸을 일으킬 경우에는 곧바로 조교가 제압하게 돼 있다. 사로당 1명씩 통제관 조교를 두는 것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고 막거나 2차, 3차 피해를 막으라는 건데, 7m 정도 떨어져 있던 데다 그마저도 기본을 지키지 않다 보니 제압할 수 없었다.

이런 총체적인 부실이 안전에 대해서 구멍을 낸 것이다. 이 역시 총기를 난사한 그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예비군 자격훈련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는 말이다.

## 계속되는 승강기 사고와 대책 부재

5월 15일 아침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25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승강기 통로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1급 중증장애인 오 모(54) 씨가 승강기 문으로 돌진해 문이 부서지면서 통로로 떨어졌다. 오 씨는 9층에 있던 승강기에 부딪혀 숨졌다.

당시 승강기 안에는 2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오 씨는 사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오 씨가 '광광' 소리를 내면서 수차례 부딪히자 승강기 문이 부서졌다"며 "이 동네에 살지는 않지만, 과거 연고가 있는 동네라 찾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 경찰은 오 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기 위해 승강기로 돌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다.

지금까지 승강기 문 이탈로 사망 또는 다친 사고는 필자가 파악한 것만 해도 2006년 이후 11건이나 된다.

-2006년 5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승강기 문을 밀치다 문이 밀려 추락하여 사망.

-2007년 1월, 서울 김음동에서 40대 지체장애인과 10살짜리 아들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승강기 통로로 떨어져 중상.

-2008년 8월, 대구 도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노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휠체어가 문에 부딪히면서 문이 이탈되어 20층에서 추락하여 사망.

-2010년 8월, 대전도시철도 서대전 네거리역에서 전동휠체어로 승강기 도어를 들이받아 문이 이탈되어 추락하여 사망.

-2011년 2월, 충북 충주 요양원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병문안을 온 60대 노인이 병문안을 마치고 승강기를 타려고 승강장에서 입구와 방향을 맞추던 중 승강기 문에 부딪히면서 승강기로 추락해 사망 등...

꾸준히 발발한 승강기 사고로 정부는 2008년 일반승강기에 대한 승강기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승강장 문의 조립체는 450 J의 운동에너지(유효 출입구 면적의 50% 이상이 유리로 된 경우 308 J 적용)로 충격을 가했을 때 승강장 문의 이탈 없이 견뎌야 한다.

즉, 승강장 문은 승강장 주위의 사람이 손으로 힘을 가하거나 몸을 기대더라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승강장문 이탈로 인한 승강로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중학생 두 명(약 120kg)이 시속 10km로 즉 450 J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충돌하더라도 승강장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도 전동휠체어

추락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그런데도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국민안전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편의증진법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일반건축물의 승강기 안전관리에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 모두 아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장애인용 승강기는 더 견고하게 조립해야

전동휠체어나 의료용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는 비장애인이 사용하는 승강기 문의 조립체보다 더 견고하게 조립해야 한다. 그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국내외 제품 규격을 고려해 최소한 920 J의 운동에너지로 승강장 문을 충돌하더라도 문이 이탈하지 않도록 조립해야 한다. 그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240kg의 질량(무게)이 10km/h (2.77m/s) 속도로 움직일 때의 운동에너지(E) =  $MV^2/2 = 240\text{kg} \times (2.77\text{m/s})^2/2 = 920.8\text{kg} \cdot \text{m}^2/\text{s}^2 = 920.8 \text{ J}$ 이다. M = 질량, V = 속도』

## 관련 부처의 조속한 대책 마련 필요

5월 14일 사고에 대한 모든 언론의 보도는 장애인이 신세를 한탄하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인가? 환경적인 문제로 볼 것인가?

전체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는 재활시대에서, 이제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자립생활로 변하는 현 추세와 궤를 같이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개인의 신세 한탄이나 비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시스템이나 환경적인 불량문제가 개개인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이며, 사망으로 내몰고 있다. 관련 부처는 이와 같은 사고로 고귀한 인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고용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정당한 직무변경으로 인한 임금변동,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무변경(전보

발령) 조치로 사실상 해고(근무지 변경, 임금감소 등)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를 찾은 지체 5급장애인 피상담자는 인사이동으로 실제 근무 장소와 업무가 변경되었고, 급여액도 줄었다.

피상담자는 계약직으로 2013년 입사하여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 5일 근무에 월 180만 원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2014년 1월 전보발령으로 전보다 출퇴근 시간이 왕

복 80분가량 늘어났고, 근무시간(09:00~18:00)이 줄어들며 급여액도 준 것이다.

기존에는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에 연장근로 시간(2시간)을 더하여 10시간을 기준으로 월 180만 원을 받았는데, 이번 전보발령에 따라 연장근로 없이 1일 기준근로시간만 근무하게 됨에 따라 급여액이 줄어들었다.

피상담자는 사측의 전보발령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한 경우였다.

사실 사례의 경우는 임금저

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회사의 전보발령이 경영인사권 차원에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다.

만일 회사의 전보발령 조치가 부당전보발령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보발령 조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종전의 근로조건이 유효하게 되기에 감소한 임금에 대해서는 추가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변경과 같

은 전보발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장소나 직종 등의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가 될 수 있으므로 직무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라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더라도, 직무변경이 실제적 요건(직무변경 사유)과 절차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 정당한 조치라면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조호근

【노동부 행정해석】 직무변경이 정당한 조치라면 그로 인한 직무에 상응하는 임금이 기존의 임금변동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저하로 볼 수 없다. (근기 01254-1987, 1992.12.09)

▲노동부 행정해석. ©조호근

## 민원상담

임상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정책지원부장)



## 주택 관련 융자지원정책

Q) 전세자금에 대한 저리 융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자, 서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의 경우 5천 5백만 원)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가구당 최대 8천만 원 이내, 수도권은 1억 원 이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시·군·구로부터 저소득가구

로 추천받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 2%의 저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8천 4백만 원 이내, 수도권 기타지역 및 광역시 6천 3백만 원 이내, 기타지역 4천 9백만 원 이내).

Q) 전세자금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A) 은행에서 전세자금, 월세보증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시중은행에서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보증료 연 0.1~0.3% 이내로 최

대 2억 원까지 신용보증 해 주는 제도입니다.

Q)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리융자지원제도도 있나요?

A) 먼저 주거약자 개량자금 융자지원은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4인 기준 510만 원) 이하인 장애인·고령자 등이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임대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융자로 미끄럼방지바닥,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연 2%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6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단 지체장애인 가구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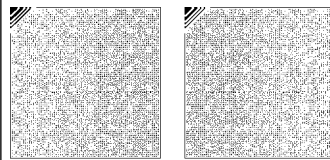
해서는 최대 800만 원이 지원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전국 우리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융자지원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소유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개량비용을 연 2.7%의 저금리로 최대 6천만 원까지 대출해드립니다.

Q)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도 있나요?

A)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로서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구입 자금을 연 2.8~3.6%의 저금리로 주택담보비율 70% 한도 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또한 보증자리론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연 4%대의 저금리로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드리는 제도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담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명단 발표

##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등 802곳 공개

고용노동부가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802곳의 명단을 4월 29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 1108곳을 지목해 공표 대상임을 알렸다. 이들 기관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126개 기관에서 장애인 577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랜드리테일 6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기관이 많아 고용노동부가 최종 명단을 공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명단에는 국가·자치단체 중 국회(1.47%) 및 8개 교육청(서울, 인천, 대구, 부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교육청) 등 총 9곳

이 포함됐고, 공공기관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0%), 기초과학연구원(0.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0.64%) 등 기타공공기관 18곳도 불명예 이름을 올렸다.

민간기업은 총 775곳으로 ▲300~499인 사업체 326곳 ▲500~999인 272곳 ▲1000인 이상 사업체 177곳이다. 30대 기업

집단은 5개 기업(두산, 삼성, 한화, 포스코, 에스오일)을 제외한 25개 기업 계열사 89곳이 포함됐다.

한편, 장애인을 전혀 고용하지 않은 기관은 64곳으로 공공기관 1곳(국립박물관문화재단), 30대 기업 계열사 3곳(코오롱/엠오디, 효성/진흥기업, LG/에이치에스에드)이었다.

## 장애인고용공단, 도소매업종 대기업 간담회

### 인사부서장들 모여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의견 교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박승규, 이하 공단)은 도소매업종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5월 13일 서울맞춤훈련센터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도

소매업종의 30대 기업집단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인사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 대기업 인사부서장들은 교보문고 등 장애인

고용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청취하고 공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현장의 고민과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공단 권기성 고용촉진이사는

“도소매업의 장애인 고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확대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공단은 도소매업종 기업

들이 장애인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2014년도 말 기준 도소매업종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49%로 전체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2.54%에 비해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단은 도소매업종의 대표 기업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꾸준히 모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매월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 독자퀴즈

-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 풀마라톤 우승자는 누구일까요?
-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이 대회’가 열렸다. 잠실실내체육관 등 11개 경기장에서 세계 60개국 시각장애인 대표 선수가 모여 육상, 체스, 축구 등 총 9개 종목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친 이 대회는 무엇일까요?

### - 힌트 -

정답은 기사 속에 있습니다.

### - 독자의견 -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독자 기고글을 받아 직접 장애인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구

고용정보를 더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장애인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실어 주기를 바랍니다. - 조대현

### 응모요령

응모요령 : 우편엽서나 이메일로 정답과 독자의견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 이메일 : news@kappd.or.kr〉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 정답 4월 20일  
4월 2일

### 당첨자

경기 남양주시 김동구  
부산 동구 조대현  
경기 안양시 조병구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부터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을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달래품

천연비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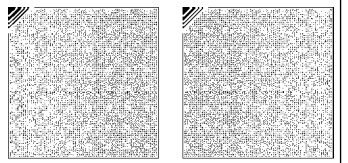
천연물결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www.gabrielcenter.or.kr



# 우리의 미래, ‘임파워먼트’에서 찾는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조직지원부 김혁성 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지역별 순시를 진행한다. 2월 6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순시 사진.

‘임파워먼트(Empowerment)’. 기업이나 공공부문 등 조직을 강화를 논하는 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크게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으로 나뉜다.

미시적 접근방법은 동기적/심리적 차원의 임파워먼트를 의미한다. 조직구성원의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느끼는 믿음인 자기효능감과 밀접하다.

거시적 관점은 조직성과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과 책임 이동을 통해 조직 내 권한 균형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를 성공적으로 조직에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그려본다.

## 직원의 자기효능감 높여 성공한 월트디즈니사

임파워먼트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사인 미국의 ‘월트디즈니사’를 들 수 있다.

이 회사는 1971년 플로리다에 세계 최대 테마파크 ‘월트디즈니월드’를 개장했고, 2년 뒤엔 직원 수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났

다. 어떤 기업이든 초기에는 직원들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의를 다하지만, 이후에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의욕이 떨어져 회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월트디즈니월드의 이직률이 83%로 치솟아 큰 문제로 떠올랐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다. 손님에게 쏟던 정성을 내부 스태프에게도 쏟기 시작한다. 우선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디즈니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때 포인트는 손님을 모시듯 정성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 점이다.

기존 직원에게는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스포츠, 야유회, 낚시 등 직원용 레크리에이션시설 건립, 어린이집 확충, 직원 할인 주요소 건설과 직원용 소식지 ‘월트디즈니의 눈과 귀’를 창간했다. 월급봉투에 생일 축하 문구를 동봉하는 등 감성적인 소통방식도 추가했다. 그 결과 2년 만에 이직률은 83%에서 28%로 55%나 하락했다.

이러한 혜택은 직원들이 업무 외적 일에 소모하는 시간을 줄여 개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도왔다. 직원의 역량강화는 결국 디즈니브랜드를 더 활성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 권한 위임 통해 조직 강화한 포스코

두 번째로 국내 굴지의 철강기업 POSCO에 대한 성공사례다. POSCO는 임파워먼트를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POSCO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임파워먼트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본부장 책임제’를 시행해 담당 임원에게 전 인사권과 예산을 편성, 조직 운영도 대폭 위임했다. 1995년에는 창사 이래 운영해 오던 부과제(임원-부-과)를 팀제(본부-팀)로 전환해 구성원의 임파워먼트를 시도했다. 또 2006년엔 조직 구조적 차원에서 기존의 ‘회장-사장-관장임원’ 체제를 ‘회장-부문장’ 체제로 전환했다.

이는 자율책임 경영을 통한 전문성을 높여 의사결정 스피드가 43% 이상 빨라지는 성과를 냈다. 특히 부문장회의를 통해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조직구조 슬립화는 의사결정 단축이라는 효과 이외에도 직무구조를 유연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권한을 하부로 쉽게 이양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 볼 수 있다.

## 가족 신발처럼 질기게 똥친 대구은행

또 다른 사례로 직원들에게 가

족 신발을 나눠주며 혁신을 강조한 대구은행이 있다. 구두는 가죽이기 때문에 질기다. 따라서 혁신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행동으로 실천해야 성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가족 신발을 볼 때마다 직원들은 자연스레 혁신을 떠올렸다. 점차 행동으로 옮겼고 회사는 그런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끌었다. 대구은행은 직원과 가족구두처럼 질긴 신뢰를 형성했고, 이를 토대로 워크아웃 조기종업이라는 기업을 토론했다. 어려움에 부딪혔던 대구은행은 흥회음 행장의 가족 신발 혁신을 시작으로 1년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에 그치지 않고 3년 연속 우량기업으로 선정됐다.

대구은행의 혁신을 통해 본 바처럼 직원들은 모든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보상이 돌아온다는 것을 느낄 때 제대로 된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임파워먼트에서 찾는 우리의 미래

위에서 본 임파워먼트 사례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4가지 제언을 정리했다.

첫째, ‘명확한 비전과 원칙 제시’다. 임파워먼트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협회

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함과 동시에 구성원들에게 임파워먼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한다.

둘째,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협회문화 구축’이다. 협회 구성원은 협회가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적자산을 중시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개인은 자신이 맡은 일에 주인의식을 갖고, 성과향상을 위해 열성을 다할 수 있다.

셋째, ‘실패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 새로운 아이디어에는 위험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협회는 구성원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업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발생하는 실패는 교훈으로 삼도록 하고, 실패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없이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넷째, ‘공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성과를 이룬 당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은 생산성을 향상하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직원에 대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권한을 위임하고 수시로 감시 또는 지시한다면 결코 진정한 참여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직원은 상사 또는 협회가 자신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피부로 느낀다. 협회가 직원 개개인을 믿고 업무를 맡기고 있음을 느낄 때, 그들은 비로소 마음속 깊이 자신의 동기와 협회 비전과의 일치점을 시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임파워먼트의 가장 좋은 사례는 직원의 동기와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한다. 직원의 가치를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들을 온전히 믿어주는 것이다. 동시에 협회가 임파워먼트를 제대로 이해하고 최적화된 임파워먼트를 제시할 수 있다면, 협회는 높은 성과를 얻고 구성원은 자유를 획득하는 윈-윈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자료

- 더그 립, 『디즈니 유니버시티』, 한빛비즈, 2014.  
조성일, 『임파워먼트를 위한 조직구조와 제도』, 포스코경영연구소, 2007.  
정순돌 외, 『사회복지와 임파워먼트』, 학지사, 2007 등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65호 2015년 5월 26일

회장·발행인/김광환 편집장/오창석 기자/이정희 발행처/(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영등포 라 00280  
홈페이지 http://www.kapdd.or.kr E-mail : news@kapdd.or.kr

대표전화 : (02)796-4280 FAX : (02)796-4281  
구독문의 : (02)2289-438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복지마당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환 중앙회장

## 사회통합을 위한 열쇠, 장애인체육



2015년 5월은 장애인체육에 있어서 중요한 국제대회가 2개나 치러진 매우 특별한 달이다. 하나는 지난 해 온 국민에게 안타까움과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취소되었던 제23회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고 다른 하나는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유치한 20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다. 두 대

회 모두 국제대회로서 각국의 장애인스포츠 선수들이 조국의 긍지를 갖고 고된 훈련의 결실을 맺고자 참가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장애인체육은 국제대회임에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올해 대회 역시 간략한 언론 보도 외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사회에서는 그들만의

잔치로만 비춰지고 있다. 여타 마라톤대회와 마찬가지로 42.195km를 달리는 휠체어마라톤대회가 끝나고 나면 교통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만다. 레이스를 하는 동안 마라토너들은 격려와 응원의 박수보다는 경찰의 호루라기와 차량의 경적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한 도전에서 그들은 외롭다.

장애인체육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들이 하는 체육활동으로 포괄적인 체육의 한 범주라 할 수 있다. 2005년 장애인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고, 같은 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했다. 이전까진 재활·의료적인 수동적 개념이었다면 이때부터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까지 포함하는 국민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또 장애인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그 근거를 두고 국민체육의 한 부분으로 법률적 위상을 가진다. 이렇듯 행정 및 법률적인 밑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장애인체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장애인당사자도 체육활동을 하기 위한 정보를 쉽게 획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도 전문체육기관이 아닌 지역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한정적인 현실에 머무르고 있다.

장애인체육이 국민체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물론 접근성 개선에는 늘 경제적인 문제가 따라 붙는다.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면,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획기

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교육과 양성을 활성화해야 한다. 체육지도자 교육에서 장애에 대한 내용을 필수로 포함해 장애인체육의 보편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체육은 이제 재활체육으로서의 의료적 제한을 넘어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행복권과 평등권 확보로 나아가야 한다. 장애인의 활발한 체육활동은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체육 활동은 문화, 경제, 국민 인식 개선 등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 국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만을 위한 주차구역입니다.

“주차가능” 표지없이 주차하거나,  
“주차가능” 표지는 있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제4항

### 보행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워주세요!

####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방법



- 1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설치합니다.
- 2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실행합니다.
- 3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최초 1회 인증)
- 4 불법 주차차 신고를 누릅니다.
- 5 사진 또는 동영상 첨부을 클릭해 촬영합니다.
- 6 내용입력을 클릭, 상세유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를 선택 상세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고위치 수정가능)
- 7 민원등록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나의 민원정보에서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보람 과월호 찾기 이벤트

